정법사 20년 불사 회향, 도량 장엄하다

원통보전 33관음응신 봉불점안식

구랍 27일, 20년 총불사 회향
원통보전 불사는 완성의 의미
도문 스님 "불교 전법에 앞장"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구랍 27일 원통보전에서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구랍 27일 원통보전에서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불국사 덕민 스님,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과 지역스님들을 비롯해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김선정 고문, 윤재선 목각장인, 김규리 불화장인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기치로 3차에 걸쳐 진행된 정법사 중창불사의 마지막 불사였다.

정법사는 2001년부터 도량불사를 시작해 20년간 진행해 왔다. 원통보전 불사는 2015년부터 이날까지 1차 산신, 수월관음도, 2차 천수보살, 3차 33관음응신 불사로 진행됐다. 3차만 3년 4개월간 진행됐다.

정법사는 초대 주지 경봉 스님 때부터 관세음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원통보전이 주불전이다. 정법사는 최상층에 관음전, 중층에 석가모니 만불전, 최하층에 지장전으로 도량을 구성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불국사 덕민 스님은 "불교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부처님 세계에서 정성드려 33응신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 우리들의 모습일 뿐"이라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외부에서 찾지 말라. 관세음보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오늘 33관음응신 봉불로 정법사가 현대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불교문화 전파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불자 한사람 한사람의 신심이 응집된 불사가 원만 회향된 공덕으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가정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은 인사말로 "덕민 스님의 법문과 같이 함께 마음 밝혀서 모두가 성불하시길 발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축사로 "추운 날씨에 동참한 도반들에게 감사드리며 점안식이 있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신심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서는 안미옥 신도회장과 김선정 고문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윤재선 목각장인, 김규리 불화장인, 곽경하 불화장인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호남지역 동지팥죽 나눔 눈길

전주 · 광주 등지에서 사찰 주도 행사 개최





전주지역 동지팥죽 나눔(사진 왼쪽)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의 도시락 전달식.

소외계층을 향한 팥죽나눔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탑밴드 봉사단, 나누우리 봉사단은 구랍 22일 전주 기린대로에 위치한 '사랑 · 나눔 · 행복을 붓다 복지관'에서 500명분의 동지 팥죽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 전주시 진북동, 교동 등에 위치한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팥죽을 전달했다.

이번 동지 팥죽 나눔행사는 마이산탑사, 천지사, 보문사, 사)장엄, 사)재백, 사)착한벗들, 재)갑룡장학회, 태고종총무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지역에서도 팥죽 나눔이 활발히 전개됐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구랍 21일 광산구청을 방문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지팥죽 도시락 5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주지 연성 스님과 김영례 신도회장, 정석원 변호사, 오윤숙 광산구청 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도시락은 광산구 코로나 의료진, 독거어르신 100세대,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100세대, 장애인 가정 200세대에 전달됐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도 구랍 21일과 22일 외국인 이주민과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지죽 새알 빚기 체험, 장애학생 장학금 전달, 송년회 행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도 구랍 22일 팥죽 680인분을 구례경찰서와 구례지역 22개 단체 및 경로당을 방문해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가 구랍 20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응 스님, 동당 세민 스님,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대중이 참석했다.

혜암당 성관 스님은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하여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며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 방장과 1994년 조계종 재10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법랍 56년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열반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해 불교문화 전승 공간 들어서다

김해 은하사, 구랍 27일 전통문화전수관 준공식 개최

1층 다목적, 2층 전수관 구조
가야불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
새해 지역중심에 발돋움 기대



김해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에 모인 대중들이 전수관 준공을 기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김해지역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전승공간이 건립됐다.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는 구랍 22일 은하사에서 전통문화전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혜수 스님, 한주 일석 스님, 前주지 혜진 스님, 조형호 신도회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진기 도의원, 황동렬 홍기건설 사장 외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주지 혜수 스님 인사말, 청법가, 입정, 회주 대성 스님 법문, 각계 축사, 테이프커팅,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대중들에게는 새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오색떡국이 공양올려졌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김해시는 인근 부산과 창원 사이의 교통 요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은하사는 그동안 가야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4월 총 연건평 155평에 달하는 전통문화전수관 불사가 시작됐다. 1층은 공양간 및 식당, 2층은 한옥구조인 전통문화관으로 향후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 혜수 스님은 "불사가 많은 어려움에도 원만 회향된 것은 모두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사람이 편안하라고 하는 것이 불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찾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은하사를 가꿔 가겠다"고 서원했다.

회주 대성 스님은 "참 나를 찾기 위해 은하사 문화전수관를 찾아 용맹정진하고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중생의 교화 장소로서 신어산 은하사가 우뚝 서길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조형호 신도회장은 "2000년 전통을 지닌 김해에서 은하사가 문화전수관을 통해 불교전통을 더 널리 알리길 기원한다. 앞으로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김해지역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진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발원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前 주지스님의 노고로 기초가 다져진 후 현 주지 혜수 스님 원력으로 드디어 전수관이 준공됐다. 최근 은하사 명부전 보살상 등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전통문화 창달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대를 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동지예술제 개최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구랍 2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동짓날을 맞아 예술제를 개최했다.

동지예술제는 대성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주지 도원 스님과 조현대 신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지 도원 스님은 "동지를 맞이해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해 우리사회 고난과 어려움이 소멸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술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대성사 감로다도회(지도 강학순, 서천 문화원 원장) 회원들이 다례를 통해 차문화를 새롭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대성사는 이웃돕기로 쌀 10kg 100포를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원 미륵암 · 연화사 자비의 쌀 나눔

남원 미륵암(주지 혜신)과 연화사(주지 도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미륵암 주지 혜신 스님과 연화사 주지 도륜 스님은 구랍 14일 남원시를 방문해 백미 10kg 50포와 10kg 60포를 전달했다.

이날 남원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혜신 스님은 사암연합회를 대표해 공동모금회에 200만 원 성금도 기탁했다.



혜신 스님은 "어려울수록 이웃에게 나눔을 행해야 한다. 이는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